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52회 정기총회 자산관리위원회 구성해 효율적 자산운영 방안 강구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지난 2월 20일 충무아트홀 대강당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남수 대한 인쇄문화협회 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의 귀빈과 조합원사 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정기총회에서 남원호 서울시인쇄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인쇄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12월 4일부터 소음진동관리법이 공포되고,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이 시작됐으며, 인쇄별 공정 요금표가 완성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제는 미래의 인쇄산업을 위한 투자를 고민해야 할 때다. 업계 원료와 선배동료를 중심으로 자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배들이 구축해 놓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제도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 없는 법도 만들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아

낼 수 있다. 이것이 결국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수곤 대한인쇄연합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쇄업계의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쇄연합회에서 첫째, 인쇄전자 기술을 조속히 인쇄업계에 접목시키고, 둘째, 입법 발의 단계에 있는 도시형 소공인지원법 입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셋째, 업계 애로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후 전회의사록 낭독, 의사록 서명이사 선정, 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부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김경선 경일칼라콤(주) 대표이사과 안태복 (주)디앤비애드 대표이사가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각종 시상식이 열렸다. Ⓜ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장 표창

김경선 경일칼라콤(주) 대표이사
안태복 (주)디앤비애드 대표이사

공로패

장세훈 송죽문화사 대표

감사패

하걸 라인애드컴 대표
안상원 리베로시스템(주) 대표이사

중소기업청장 표창

이준규 삼영문화사 대표 외 2명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김은대 동안사 대표 외 4명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신병태 대산문화인쇄 대표 외 3명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표창

송춘섭 동양전산(주) 대표이사 외 3명

서울인쇄조합이사장 표창(조합원)

김상섭 금양문화사 대표 외 3명

서울인쇄조합이사장 표창(종업원)

이현호 문성원색 출력실 차장 외 3명